• 1교시 언어 영역 •

1	④	2	⑤	3	④	4	⑤	5	①	6	⑤	7	④	8	④
9	④	10	②	11	②	12	⑤	13	⑤	14	②	15	②	16	③
17	④	18	⑤	19	③	20	①	21	④	22	②	23	②	24	②
25	③	26	④	27	⑤	28	⑤	29	③	30	②	31	④	32	④
33	⑤	34	④	35	③	36	⑤	37	①	38	④	39	⑤	40	③
41	⑤	42	④	43	②	44	⑤	45	④	46	③	47	④	48	⑤
49	④	50	③	51	①	52	④	53	②	54	③	55	②	56	④
57	③	58	③	59	⑤	60	②								

/ 듣 기 /

1. 〔세부 정보 확인하기〕

이제 여러분에게 문화 센터의 육아 관련 강의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그림을 보며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초보 엄마를 위한 신생아 마사지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기들에게 엄마와의 신체적 접촉은 아기의 신체 건강과 정서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아기를 마사지하는 것이 양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을 정도였죠. 편한 자세로 앉아 강의를 들으시고 들은 대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마사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이 아주 따뜻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바닥에는 타월을 깔아 놓습니다. 아기의 옷을 벗길 때 엄마의 손 역시 따뜻해야 하며 손이나 팔에서 장신구는 모두 빼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몬드 기름이나 코코넛 기름 같이 쉽게 스며드는 식물성 오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오일도 항상 따뜻해야 하니, 반드시 뜨거운 물이 든 그릇에 병을 넣어 두세요. 자세는 다리를 쭉 뻗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데요, 만일 등을 받쳐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벽에 기대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무릎에 아기를 눕혀 놓은 채 마사지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때, 아기와 엄마는 서로 마주 보는 위치가 되어야 하며 아기의 발은 엄마의 몸 쪽으로 오게 하세요. 아기가 좀더 피부의 접촉을 즐길 수 있도록 엄마의 다리는 맨살이 드러나게 합니다. 마사지의 연속된 손동작은 아기 몸의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그 동작의 리듬감이 끊이지 않도록 하면서 각 동작을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합니다.

〔출제의도〕 강사가 제시하는 정보를 듣고 주어진 보기의 그림 중 일치하는 것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해설〕 강연의 중간 부분에서 자세는 다리를 쭉 뻗고 앉으라고 했으며 끝부분에서 아기가 피부접촉을 즐길 수 있도록 엄마는 다리 맨살을 드러내라고 했으므로 ④번이 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 〔비판의 근거 파악하기〕

이번에는 동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다람쥐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 동갑내기 두 마리 다람쥐가 살았는데 하나는 '다람', 다른 하나는 '밤톨'이라고 불렸답니다. 다람은 나무타기에 도사라서 늘 높은 나무를 찾아다니며 맛있는 먹이들을 모아 오는데 밤톨은 겁이 많아 나무 꼭대기 쪽은 엄두도 못 내고 안전한 낮은 곳만 다녔어요.

(휙휙, 부스럭부스럭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나무 타는 소리)

다람 : (충고하듯이)밤톨아, 너 참 안 됐다. 너 그거 몰라? 맛있는 먹이는 다 높은 데 있어.

밤톨 : (조심스럽고 얌전하게)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높은 곳이 싫어, 다람아. 무서워.

다람 : 쯧쯧... 그러니까 맨날 맛없는 것만 먹지. 항상 배도 고프고.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나무를 잘 탔던 건 아냐. 처음엔 식은 땀이 날 만큼 겁났는데 자꾸 연습하다 보니 이젠 이렇게 잘 하잖아. 남들도 갈 수 있는 곳만 다닌다면 남들하고 똑같은 것밖에 못 먹어.

밤톨 : (얌전하지만 분명하게)난 오히려 네가 자꾸 위험한 높은 곳만 좋아하고 왜 낮은 데로 내려와 다니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한꺼번에 좋은 먹이를 혼자 다 차지해서 어쩌려고? 난 널 따라 하지는 않을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다람은 절벽 위로 뻗어 나간 위험한 가지의 열매를 따려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답니다. 네 다리가 다 부러지고 눈도 다치는 등 상태가 심각했어요. 몇 달간 병석에 누워 있던 다람에게 어느 날 밤톨이 찾아왔어요.

밤톨 : 다람아, 좀 어떠니?

다람 : 으~ 아파……. 일어날 수가 없고 눈도 안 보여.

밤톨 : 앞으로 내가 가끔 먹이를 가져다줄게. 별로 맛있는 건 아니지만.

다람 : 그래, 고마워.

밤톨은 밖으로 나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밤톨 : 무모한 친구였어. 높은 가지일수록 맛있는 먹이가 많이 달려 있다는 건 누구나 알지. 그렇지만 이렇게 다칠 걸 꼭 그랬어야할까? 난 양이니 맛이니 안 따질 거야. 탈없이 오래 살다 주어진 수명을 다하는 게 최고지

〔출제의도〕 동화를 듣고 등장 인물의 태도를 비판하며 그에 적절한 근거가 되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이다.

〔해설〕 밤톨의 태도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대사를 보면,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자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근거는 평범한 안정보다 '진취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답은 ⑤번이다. 밤톨이 누군가에게 변명하고 있는 말이 아니므로 ①번은 답이 될 수 없고,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아니므로 ③번 역시 답이 아니다.

3. 〔정보 이해하여 활용하기〕

이번에는 강의를 들려드립니다. 물음과 답지까지 다 듣고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강사 : 인터뷰를 할 때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어요. 우선 쉽고 가벼운 화제로 질문을 시작해야합니다. 상대방이 긴장을 풀고 본격적인 질문에도 수월하게 대답할 수 있게요. 둘째, 질문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예' 또는 '아니오'로만 끝나버릴 단답형 질문은 좋지 않아요. 셋째, 상대방의 말은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 대답 속에 다시 질문 거리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세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면 상대방이 대답하는 도중 뒷 질문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다섯째, 추임새를 적절히 이용하면 좋아요. '네, 네'만 하지 말고 '대단하네요', '놀랍네요', '이야~ 그것 참!' 등 의 말과 고개 끄덕이기, 감동하는 표정 등 여러 가지 비언어적 표현을 동원하면 효과적이죠. 여기 어느 기자의 인터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을 잘 듣고 평가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효과음〉

기자(여) : 오늘은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진우씨를 모시고 '프로게이머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진우씨, 간략히 몇 가지만 질문하지요.

진우(남) : 네, 좋습니다.

기자(여) : 첫 번째 질문입니다. 17세에 프로게이머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입문하게 되었나요?

진우(남) : 워낙 게임을 좋아했어요. 좋아서 줄곧 하다보니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아마추어 대회에서 입상도 몇 번 했었지요. 그러다가 감독님 눈에 띄게 된 거구요.

기자(여) :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프로게이머가 된 후 그전과 달리 좋아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진우(남) :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명예도 얻었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 아주 기뻐하셔서 좋아요. 전엔 하루종일 무표정하게 컴퓨터 앞에만 있다고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기자(여) :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표정했었다는 말을 듣고 생각하니 진우씨는 경기 중에 표정 변화가 거의 없던데 그렇게 집중력이 뛰어난 비결이라도 있나요?

진우(남) : 특별한 비결은 없고 경험이 쌓이면서 좋아졌습니다.

기자(여) :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입은 얼마나 되며, 몇 살까지 프로게이머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진우(남) : 많은 분들이 프로게이머의 수입이 좋은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기자(여) : 그럼, 몇 살까지 프로게이머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진우(남) : 군대 가기 전까지가 프로게이머의 직업정년이라 하더군요.

기자(여) :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프로게이머를 지망하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진우(남) : 프로게이머가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일이예요.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죠. 조금만 게으름 피우면 바로 성적에 나타나요. 하루 12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야 하는데 친구며 개인생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작정을 해야 해요.

기자(여) :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제의도〕 강의 내용을 듣고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해설〕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질문은 모두 강의 내용에 부합된 예이다. 넷째 질문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물어 상대방이 대답하는 도중 뒤의 질문을 잊어버리게 하였고 그래서 결국 다시 재차 질문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잘못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첫째 질문은 상대방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경험·사실로 묻기 시작했으므로, 세 번째 질문은 상대방의 말에서 질문거리를 찾아냈으므로 강의 내용에 맞는 잘된 질문이다. 또한 모두 '네'나 '아니오'인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은 아니므로 인터뷰 시 유의할 사항을 잘 지킨 예라고 할 수 있다.

4. 〔주제 파악하기〕

다음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태어나서 30년이 넘는 기간을 서울에서만 살다 몇 년 전부터 시골에 내려와 생활하는 초보 농부이자 동화작가랍니다. 3년 전쯤 복잡한 서울을 떠나 처음 시골에 정착했을 때는 벅찬 마음에 뭐든지 손만 대면 다 성공할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래서 동화를 쓰는 틈틈이 상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아주 쉬워 보였는데, 벌써 3년째 내리 실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싹이 나오지 않고 철이 한참 지나버렸군요. 첫해 제가 이른 봄에 밭가는 걸 본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다 말고 "우리 동넨 5월초에도 서리가 내린다네"라고 툭 한 말씀 던지고 가시더라구요. 왜 그러시는지 몰라 무심코 지나치고 씨를 뿌렸지요. 싹이 예쁘게 올라오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더 크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정말 서리가 내려 채소들이 냉해를 입은 탓이더군요. 그래서 다음 해는, 바로 작년이죠, 비닐하우스에서 싹을 내서 모종을 했답니다. 그런데 모종시기가 너무 빨라서 또 서리를 맞고 말았어요.

연거푸 두 해를 실패하고 나니 올해는 아주 조심스럽더라구요. 아주 작정을 했지요, '때를 기다리자~' 하구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가보니 날씨가 아주 따뜻한 게 '벌써 봄이구나' 싶어서 서둘러 씨를 뿌렸죠. 근데, 또 씨를 뿌리고 나니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감자며 각종 채소씨들이 다 얼어버렸죠.

제 때에 맞춰 씨를 뿌려 푸르게 자란 이웃들의 채소밭을 보면서 어찌나 우리 채소들에게 미안하던지…….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지향하며 살아왔던 태도가 아직 제게 남아 있나 봐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걸 보니. 모든 일에는 제 때가 있고 그 때를 잘 맞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텐데요. 채소야, 미안해! 이젠 기다릴게!

〔출제의도〕 프로그램에 소개된 일화를 듣고 주제를 찾아내는 문제이다.

〔해설〕 실패했던 상추 재배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는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살던 습관이 들어서 대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사는 지혜를 잊었음을 반성하는 의도로 말하고 있으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5~6.

이번에는 '인터넷 소설'과 관련된 토론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5번 문제를 푼 뒤 6번의 문제를 들려드립니다.

남학생 : 인터넷 소설은 기존 소설과 다른 생소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지만 애독자들은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읽으며 감동합니다. 소설 작법과 문법에 충실하지 않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독자의 감동이 우선 아네요?

여학생 : 독자의 감동,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일부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이모티콘 남발에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의 무분별한 사용, 많은 문법 오류 등 그 전달 수단은 문제가 큽니다. 소설은 말이 아니라 글이거든요. 게다가 인터넷 소설은 플롯도 없고, 소재는 빈약하며 구체적 묘사 없이 대화체로만 쓰여져 소설다운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학생 : 형식이 기존 소설과는 좀 다르죠. 문법이 틀린다거나 묘사가 없다는 게 그리 큰 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소설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나요? 교훈을 얻고 싶으면 윤리·사상책을 봐야지요. 재미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학생 : 재미가 있어야 소설이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진지한 주제의식 없이 통속적이고 자극적이어야만 재미있는 걸까요? 짜임새 있고 인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구성과 표현 덕에 손에서 떼기 싫은 책들도 많죠.

남학생 : 명작 중에서도 지금의 인터넷 소설만큼이나 비난받던 작품들이 있었어요. 시대를 앞서 나갔기 때문에 당대에 용인되지 못했던 작품들 말씀입니다. 인터넷 소설도 이후 명작으로 인정받을지 누가 압니까?

여학생 : 물론 비난받던 작품들이 나중에 재조명되기도 합니다. 이상(李相)이나 D.H 로렌스의 경우처럼요. 하지만 그 경우에도 구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새로운 가치나 지향은 분명히 있었는데 인터넷 소설들은 아주 통속적이고 진부하잖아요. 순정 만화와 거의 똑같은 내용도 있더군요. 시대정신의 반영 없이 소설이라고 할 수 있나요? 90% 이상의 작품들에서 신데렐라 콤플렉스·외모지상주의 등을 불 수 있습니다. '썼다'고 해서 모두 소설이 될 수는 없죠.

5. 〔토론의 쟁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토론을 듣고 주된 쟁점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해설〕 인터넷 소설에 대해, 여학생은 형식적 특징이나 주제 의식, 교훈성, 시대정신의 반영 등 여러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설이 아니라고 하며, 남학생은 재미와 전달력, 독자의 감동이라는 면에서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설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은 '인터넷 소설도 소설일 수 있는가?'이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6. 〔말하는 태도 이해하기〕

〔출제의도〕 토론을 듣고 토론자의 말하기 태도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여학생은, 이상이나 D.H 로렌스의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남학생의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점은 일부 수용하기도 하는데, '독자의 감동이 중요하다', '재미가 있어야 소설이다', '시대를 앞서 가는 작품은 당대에는 비난받기도 한다' 등이 그것이다. 정답은 ⑤번이다.

/ 쓰 기 /

7. 〔그림을 보고 연상하기〕

〔출제의도〕 그림을 보고 연상하는 문제이다.

〔해설〕 그림을 보면 한 권의 책과 열 권의 책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게의 관념과는 달리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는 고정

관념을 깬 열린 사고와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질과 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본다면 한 권의 무게가 열 권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산업보다 하나의 특화된 전략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한 권의 양서가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을 사귀라는 것은 그림에 나와 있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 그림에서는 한 권이 열 권의 책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보다 한 사람의 친한 친구가 중요하다'와 같은 표현이 맞는 연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8. **〔사고의 전개 과정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해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해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사고를 전개하는 과정이다. 먼저 현대 사회는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 후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 내용으로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편견, 육아 문제로 인한 사회 활동의 어려움,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 의무화', '능력을 중시하는 승진 문화의 조성', '남녀 고용 평등제의 도입', '양성 평등 의식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④번의 여성 전용 상품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기업의 판매 전략의 일환이므로 원인 분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9.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출제의도〕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서·표현 등의 조건에 맞춰 수필로 고쳐 쓰는 문제이다.

〔해설〕 ④번은 '달이 앓고 있다, 눈물을 떨군다'는 의인법과 '눈이 내린다'는 계절감의 표현 및 슬프고 외로운 정서의 유지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정답이다. ⑤번은 비유적 표현(난초 같던 아내-직유법)과 슬픈 정서는 있으나 계절감이 드러나지 않으며 ③번은 비유적 표현(까악까악-의성법, 까치소리가 음악소리이다-은유법)과 계절감(이 더위를 ~)은 나타났으나 슬픈 정서는 보이지 않는다. ①번도 비유적 표현(단풍이 수줍어서 고개를 돌린다-의인법, 내 마음의 파문-은유법)과 계절감(단풍)은 있으나 슬픈 정서가 보이지 않는다. ②번은 비유적 표현(한 평 잠자리, 영원한 잠-은유법, '착한 아내와 건강은 남자의 가장 큰 재산'-풍유법)과 슬프고 외로운 정서(슬프고 외로운 날)는 보이나 계절감이 보이지 않는다.

10.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쓰임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해설〕 '경신'과 '갱신'은 한자가 '更新'으로 동일하나 그 의미는 다르다. '경신'은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의 의미이나 '갱신'은 법률 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에 주로 사용되어 '비자 갱신, 면허 갱신' 등에 주로 사용된다. '남용(濫用)'은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쓰다'의 의미이고 '오용(誤用)'은 '잘못 사용하다'의 뜻이다. '개정(改定)'은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의 뜻으로 '헌법 개정, 회칙 개정, 악법의 개정' 등에 쓰인다. 이에 비해 '개선(改善)'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거나 착하게 만듦'의 의미이므로 '입시 제도 개선, 유통 구조 개선, 관계 개선' 등에 주로 쓰인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1. **〔개요표 수정하기〕**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추가 자료를 접했을 때, 그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개요표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해설〕 본론 2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장·단점이므로 〈자료1〉의 ㉠, ㉡내용을 참고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여가형 사회로의 진입,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에 관련된 것이다. 특히 ㉡을 참고로 사업가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의 변화를 예상하여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가가 여가 활동의 증가를 예상하여 관광·레저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제 활동의 측면이지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론 2-가에 들어갈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은 ②번이다.

12. **〔고쳐쓰기〕**

〔출제의도〕 한 편의 글을 주어진 검토 단계에 따라 고쳐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의 글은 학교 홈페이지에 실을 홍보용 글인데 전체적인 글의 내용은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사 토론방을 개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단락에 '시사토론' 동아리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하는 내용은 앞의 토론 문화 부재 원인과 논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런데'라는 접속사보다는 '그래서'가 맞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제목은 ①번과 같이 '학교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자'가 적절하며, 문맥상 생각과 의견을 밝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참여(參與)'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의 뜻이고 '참석(參席)'은 '모임이나 회의 따위의 자리에 참여함'이므로 ②번과 같은 수정은 적절하다. ③번은 '토론을 잘하든 못하든'이 맞는 표현인데, '-던'이 되면 과거의 의미가 되어버린다. ④번은 토론의 효과를 언급하면 설득력이 높아지므로 이를 보충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13. **〔문장의 오류 파악하기〕**

〔출제의도〕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를 통해 어법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의 문장은 부사어 '결코'는 '~하지 않는다'처럼 부정의 서술어와 호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로 해야 한다. ⑤번의 부사어 '별로'도 이처럼 부정의 서술어와 호응해야 한다. 즉 '그 사람은 외모는 몰라도 성격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로 해야 맞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①번에서 연결어미는 '~이요'이고, 종결어미는 '~이오'이므로 '이것은 나의 책이요,~'로 해야 한다. ②번은 '예쁜 그의 누나가'가 중의적 의미가 있다. 즉 '예쁜'이 '그'인지 '누나'인지 알 수 없다. ③번은 '우연치 않게'를 '우연히'로 바꾸어야 한다. ④번은 내가 데리고 가는 대상이 '할머니'이기 때문에 '데리고'를 '모시고'로 해야 높임법에 맞다.

14. **〔의문사의 용법 이해하기〕**

〔출제의도〕 의문사의 의미를 판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의 설명처럼 우리말의 의문사는 의문사 본래의 고유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화자의 특정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다. 밑줄 친 의미로 쓰인 것은 ②번이다. 왜냐하면 ②번은 '어떻게'의 의미라기보다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다니, 어이가 없다'는 다분히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의문사가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①, ③, ④, ⑤번은 의문사 고유의 의미, 즉 '어디에, 왜, 누가, 무슨'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현대시 /

□ 출전 : (가) 김광균, '설야'
(나) 김용호, '눈 오는 밤에'
(다) 정호승, '겨울 강에서'

15. **〔작품의 공통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 (나), (다)는 모두 '눈'이나 '갈대'와 같은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내면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즉 (가)는 눈오는 밤의 정경과 그리움의 정서를, (나)는 눈 오는 밤을 통해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다)는 억압된 상황에서도 갈대를 바라보며 참되게 살려는 의지를 그리고 있다.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16. 〔비유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어의 비유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의 ⓐ, ⓑ, ⓓ, ⓔ는 눈을 비유하는 보조 관념이다. 그러나 ⓒ는 눈의 보조 관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17.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감상하기〕

〔출제의도〕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감상을 하기 위하여 소통 구조와 표현 효과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다)의 화자는 질화로에 밤알이 토실토실 익어 가던 어린 시절의 정겨움도 모두 사라져 버린 메마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다. 화자는 눈 오는 밤에 홀로 눈길을 걸으며 고독에 젖다가 구수한 할머니의 옛 얘기를 듣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18. 〔작품에 대한 심화 감상하기〕

〔출제의도〕 작품에 대한 이해와 심화 감상을 하기 위하여 시적 화자가 대화하는 문제이다.

〔해설〕 (다)는 자신의 역경을 이겨내려는 모습이 나타난 시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지라도 이겨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으나 청산과 같은 이상향에 살고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9. 〔시어의 기능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의 '다듬이'는 고국을 떠올리게 하는 회상의 매개체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어는 ③번의 '눈'인데, 화자로 하여금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시어이다.

/ 현대 소설 /

□ 출전 : 김소진, '자전거 도둑'

20.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전체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해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대화를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소주 두 병을 훔치는 사건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장면 전환에 관계없이 계속 1인칭 '나'를 주인공으로 하여 사건이 서술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④번은 주인공인 '나'를 통해 자신의 유년 시절의 심리와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⑤번은 사건 시기는 과거 유년 시절이고, 서술 시기는 현재이므로 맞는 내용이다.

21. 〔작품의 주제 파악하기〕

〔출제의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도와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나'는 가난 때문에 아버지가 겪는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상처를 간직하게 된다. 즉 등장 인물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통해 받은 내면의 상처를 다루면서 성장기의 아픔과 성숙의 과정을 그린 소설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③번은 아버지를 동정하면서도 자신이 겪은 상처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동지적 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단순히 ⑤번처럼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만을 다룬 소설도 아니므로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22. 〔서술자의 심리적 태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서술자인 '나'가 '혹부리 영감' 앞에서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정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나'는 가장으로서 수모를 참고 겪어야 하는 아버지의 애처로운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연민과 동정을 느끼고 있다. 이런 감정은 특히 본문의 '아버지의 눈 속에 흐르지도 못하고 괴어 있는 눈물'이라는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오빠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나타난 ②번이다. ①번은 경외감, ③번은 의지, ④번은 비난과 조롱, ⑤번은 두려움의 심정이 들어 있다.

23. 〔중심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중심 소재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소주 두 병'을 아버지가 훔침으로 인해서 사건의 극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즉 ㉠을 통해 혹부리 영감과의 갈등이 고조되며 극적 긴장감도 유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은 아버지와 '나'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①번은 인간 관계에 있어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⑤번은 인간의 권위가 회복된다는 진술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24. 〔매체 변용을 통한 사건 전개 양상 파악하기〕

〔출제의도〕 매체 변용을 통해서 사건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혹부리 영감이 주는 수모를 참아야 하며 비굴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②번처럼 혹부리 영감에게 따지듯이 대드는 행동과 어투는 작품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 과학 제재 /

□ 출전 : 서현,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25. 〔세부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본문을 읽고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①번의 벤딩모멘트의 작용은 첫째 문단에 나타나 있으며, ②번의 건축의 높이와 압축력은 둘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장력과 모양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④번의 압축력과 인장력의 상관 관계와 ⑤번의 인장력이 발생하는 사례는 셋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26. 〔중심 정보 적용하기〕

〔출제의도〕 본문을 읽고 그림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부재를 휘려고 하는 힘을 벤딩모멘트라고 하는 개념과 넷째 문단의 낚싯대가 휘게 되는 원리를 종합해 보면 (가)부분에는 벤딩모멘트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료를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이므로 (나)에는 사람의 몸무게로 인해 그넷줄에 인장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압축력은 부재의 길이 쪽으로 가해지는 힘이므로 (다)에는 사람의 체중이 그네 상판을 실리기 때문에 그네를 지탱하는 기둥에 압축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7. 〔어휘의 의미 확인하기〕

〔출제의도〕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치'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의 '날림치', '당년치', '중간치', '버림치'가 있고, '값'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기대치', '최고치', '평균치', '한계치'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8. 〔사례 적용하기〕

〔출제의도〕 본문 내용을 읽고 문맥적 의미와 관련된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해설〕 ㉡은 건축물이 강한 바람의 횡력에 의해 움직이는 현상인 벤딩모멘트의 원리를 설명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목욕탕 굴뚝이 바람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고려하여 위로 갈수록 굴뚝의 굵기를 가늘게 하고 아래로 갈수록 굵게 만든 것이라든지, 63빌딩과 같은 고층 건물이 강한 바람의 횡력에 의해 흔들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위는 가늘고 아래는 굵고 넓게 만드는 것, 또는 낚싯대의 손잡이 부분을 더 굵게 만든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인문 제재 /

□ 출전 : 장병길, 『한국 종교의 이해』

29. **〔중심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종교에 인간의 신념 체계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③번이 정답이다. 종교가 현실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여 ①번을 정답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세 가지 신념 체계가 종교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본성과 시대적 상황에 관련된 정보는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고 있다.

30. **〔세부 정보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윤리적, 도덕적 덕성의 함양은 구도형 신념 체계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현세적 부족을 충족하려는 기복형은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인적(全人的) 우주관에 관한 진술은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 세계의 염원을 표출하는 내용은 넷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31. **〔중심 정보 적용하기〕**

〔출제의도〕 핵심 정보가 구체적인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를 파악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구도형은 이상적인 자아의 완성을 추구하는 신념 체계이므로 이를 위해 고행과 극기의 방법이 동원된다는 정보를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도자의 고행을 진술한 ④번이 정답이다. ①번은 개벽형으로 넷째 문단에서, ②번은 구도형으로 셋째 문단에서, ③,⑤번는 기복형으로 둘째 문단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2. **〔정보 적용하여 심화하여 이해하기〕**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다른 정보와 관련지어 심화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우리나라와 시베리아의 솟대 문화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기복형 신앙의 예로서 인간의 삶과 종교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지역적으로도 널리 분포되어 있고,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에 의탁해 현실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솟대 문화(신앙)를 통해 이상사회를 꿈꾼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이다.

/ 예술 제재 /

□ 출전 : 이주헌, 『서양화 자신 있게 보기1』

33. **〔세부 정보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출제의도〕 글 속에 나타난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지문은 우리가 사물을 볼 때에는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잡아당겨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러한 원리가 미술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술은 인간의 심리를 적극 활용하는 예술이므로 이런 면에서 감상자는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눈과 마음의 관계를 의식하고,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며 능동적·심리적인 태도로 감상해야 한다고 했다. 변형된 이미지가 어떤 단계를 거쳐 실제 모습으로 인지되는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①번은 마지막 단락에, ②번은 세 번째 단락에, ③번은 결국 심리적 작용을 반영한 것이 미술 작품이 되므로 전체 내용을 통해서, ④번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다.

34.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을 읽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마지막 단락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가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점을 살피면서도 감상자가 능동적·심리적으로 반응하며 감상해야 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②번에서 일루전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능동적·심리적인 감상과는 거리가 멀고, ③번에서 작가의 의도를 수용하는 것은 능동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⑤번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35. **〔세부적으로 정보 추론하기〕**

〔출제의도〕 글 정보를 세부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원의 순차적인 집합을 나선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시각적 중력 혹은 관성이 작용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답은 ③번이다. ②,⑤번은 마지막 단락에, ④번은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다.

3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을 읽고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은 경험이나 흥미, 관심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되, 자신이 잘 아는 어떤 사물의 이미지와 연결하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사물을 주관으로 해석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37. **〔문맥적 의미 이해하여 적용하기〕**

〔출제의도〕 글 속에 나와 있는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이다.

〔해설〕 일루전이란 '환영'을 의미한다. 즉,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환영'이다.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①번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가리키지만, 나머지는 변형된 이미지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고전 시가 /

□ 출전 : (가) 이제현, '사리화(沙里花)'
(나) 위백규, '농가(農歌)'
(다)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38.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 감상하여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지문의 (가)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에 대한 풍자가 돋보이는 작품이며, (나)는 농촌의 전원적 삶에 대해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며, (다)는 팔월의 절후와 풍속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가사이다. 그런데 (다)는 (가), (나)에 비해 군데군데 '장만하소, 쓰게 하소, 혼수하세'등의 어투와 절기에 따라 부지런히 농사일을 권면하는 주된 내용으로 볼 때, 교훈성이 부각되는 작품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①번은 (가)가 풍경을 묘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참새에게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②번은 (가), (다)가 삶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도 없으며, 더구나 (가)는 검소함과는 거리가 멀다. ③번은 (나)와 (다)에 변화된 계절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계절의 변화가 묘사된 것은 아니며, ⑤번은 (가)에 전원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찾아볼 수 없다.

39. **〔시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어간 의미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이질적인 시어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 (나), (다)는 모두 농촌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다. 따라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농촌 작물의 의미를 작품 속에서 파악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농민들이 힘들여 재배한 곡물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⑤번은 산에 자연적으로 있는 열매를 따온 것이기 때문이다. 문맥적으로 볼 때 ③번은 누렇게 익은 곡식을 뜻하는 비유적 표현이므로 농민들이 힘들여 지은 곡물이라고 할 수 있다.

40. **〔작품의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와 〈보기〉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배 계층을 풍자하는 주제적 공통점 외에도 표현 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가)의 '참새'와 〈보기〉의 '황새'와 '뱀'은 지배 계층을 의미하며 (가)의 '늙은 홀아비'와 〈보기〉의 '제비'는 힘 없는 백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①, ②, ④, ⑤번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 풍자적 표현, 직설적 방법이 아니라 우의적 방법의 사용, 작품 속에서 서로 대비되는 소재의 활용은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것은 〈보기〉에선 나타나나 (가)에서는 일방적으로 묻는 내용으로만 진술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41.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작품의 정서와 어조와 유사한 글을 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해설〕 (나)의 〔A〕는 대구적 표현과 풍족한 가을을 맞는 만족감이나 풍요로움의 정서가 들어 있고, 그런 정서를 여유 있고 호기에 찬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⑤번이 가장 적절하다. ①번은 고마움이나 그리움의 정서가 느껴지고, ②번은 자연의 빠른 변화를 통한 무상감이, ③번은 바쁘고 힘든 노동 속에서도 미래의 결실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농부의 심정이 들어 있으나 대구적 표현이 없으며, ④번은 대구적 표현은 있으나 외로움의 정서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

42. **〔심화하여 감상하기〕**

〔출제의도〕 작품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심화 감상한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해설〕 (다)는 농촌의 풍습과 절후를 노래한 가사이므로 기본적으로 3(4)·4조의 4음보 율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대 농촌의 생활상과 풍속도 소개되고 있으며, 먼저 절후를 노래하고 뒤에 절후에 맞는 농사일이 소개되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작품의 특성을 바탕으로 심화내용을 찾은 ①, ②, ③번은 타당한 감상이다. 또한 (다)는 가을을 맞는 풍성함이 작품 전편에 흐르고 있지만, 작품 어느 곳에도 힘들게 살아간 농민들의 실상에 대한 묘사는 없다. 이는 작자가 양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⑤번과 같은 심화 감상도 타당하다. 그러나 (다)가 민요적 성격을 지닌 노동요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④번과 같은 감상은 타당성이 없다. 정답은 ④번이다.

/ 고전 소설 /

□ 출전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43.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전체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해설〕 작품은 등장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①번에서 일상 대화 중심의 구어체를 통해 서민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번은 역순행적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순행적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번에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구체적인 배경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⑤번에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44. **〔인물의 태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내용 파악을 통해 작중 인물이 처한 태도와 모습을 파악한다.

〔해설〕 채봉은 종래의 봉건적이고 유교적 여인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여인상 즉,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속물적인 부모의 명을 '신의는 천자라 할지라도 바꾸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거역하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책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5. **〔인물의 행동 방식 추론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추리하는 내용이 타당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씨 부인은 김 진사 편이 되어 채봉에게 허 판서의 첩이 되라고 부추기므로 채봉이 겪는 갈등 상황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①번은 김진사가 벼슬을 하기 위해 딸을 첩으로 보내는 면에서 매관매직(賣官賣職)의 타락한 사회상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②번은 김 진사의 벼슬에 대한 탐욕이 채봉으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③번은 채봉이 추향을 꾸짖는 대화에서 하인과 상전이라는 신분상의 차이가 드러나 있다. ⑤번은 추향이 채봉의 처지를 안타까워 하지만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46.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의 태도와 사고를 통해 말하기의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채봉은 추향의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옛 성현의 말을 근거로 하여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답은 ③번이다. ④번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나 비아냥거린다고 볼 수는 없다.

47. **〔내용을 다른 상황에의 적용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의 관점은 효자는 부모의 불의(不義)를 보고 공경을 다해 계속 간(諫)하여 부모가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채봉의 부모는 필성과 혼약을 깨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 판서에게 채봉을 첩으로 보내려는 불의를 행한다. 그러나 채봉은 부모의 불의에 대해 간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따라서 부모에게 의를 행할 것을 정성껏 간하여 끝내 의에 이르게 하는 충고가 필요하다. 이에 정답은 ④번이다. ⑤번에서 부모에게 의를 정성껏 간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포기하고 자기 혼자만이라도 의를 행하라는 충고는 적절하지 않다.

/ 언어 제재 /

□ 출전 : 서정수, 『우리말과 우리 생각의 유형』

48. **〔기본 전제 확인하기〕**

〔출제의도〕 우리말의 여러 가지 특징을 밝히고 있는 글에서 그 기본 전제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에서는 우리말의 미괄식 어순이 순리적 사고를 하게 하며 (나)에서는 우리말의 생략 현상이 함축미를 자아내어 우리의 감성적 성향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와 (나)는 우리말과 우리의 사고 방식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기본 전제는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9. **〔정보와 관련된 실례 파악하기〕**

〔출제의도〕 우리말의 특징을 적용하여 나타낸 적절한 실례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앞부분에 주변적인 것을 서술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 우리말의 미괄식 구성을 묻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①,②,③번은 중심 문장이 앞에 나오고 이유나 조건,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오는 두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⑤번은 앞과 뒤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내용상 대조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50. 〔문맥상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생략 현상'은 우리말에서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웬만한 말을 생략하여 버리는 특성으로 인구어의 특징인 ㉢'점과 점이 이어져서 논리적 연결이 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나머지 ㉮'아주 짧은 표현'이나 ㉯'징검다리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말의 생략을 뜻하며, ㉰'함축미나 은근한 맛을 자아내는 근본'도 생략을 통하여 일어난 결과이며, ㉱'여러 모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도 점의 논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모두 생략 현상과 관계가 깊은 것이다.

51. 〔중심 정보 적용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와 관련된 예를 제시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해설〕 산문을 운문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한 내용을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번이다. 즉, '말과 말 사이가 이어져 있다.'라는 말은 본문에서 선의 논리로 표현되었다는 뜻으로 산문적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②에서 '부드러운 감흥을 느낄 수 있다', ③에서 '점의 논리로 바뀌어 표현되었다', ④에서 '언어의 절약으로 운율을 살렸다'. ⑤에서 '깊은 맛을 자아내며 여운을 남겨 준다.'는 것은 모두 운문적인 특성을 지적한 것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사회 제재 /

□ 출전 : 김찬호, 『사회를 보는 논리』

52. 〔글의 진술 방식 이해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지문의 특징적인 서술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지문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그 양상을 고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이다.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인의 정체성은 서구적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적 일체감을 갖게 하였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이었음을 시대별고 서술하고 있다. ⑤번의 경우 문화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시대에 맞는 정체성 형성의 요구됨을 말하지만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53.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필자가 핵심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중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한국인의 정체성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고, 일제 시대는 저항적 민족주의로 확고해졌으며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의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하였음을 밝힌 것은 ②번이다. ①번에서 정체성의 형성 시기와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필자의 주된 논의 내용과 거리가 있다. ③번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는 제시되고 있지만 문화적 발달에의 영향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⑤번에서 전통 문화가 서구적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1970년대 이후에 다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었음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54. 〔세부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지문의 세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한국인의 정체성은 이미 7세기 이래로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민족과의 교류가 정체성 형성의 직접적인 계기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내용은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통 문화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대학생들의 문화 운동의 주제에 지나지 않았다는 정보는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55. 〔중심 정보 비판적 이해하기〕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고 새로 접한 관련 정보를 통해 비판적 관점에서 글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에서 필자는 한국인의 정체성의 본질을 과거의 전통 문화 그 자체에 두고 있지 않다. 현대의 문제나 정서를 담은 우리 영화의 경우에도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시대적 관심과 상황은 정체성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됨을 파악할 때, ①,③번은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고 전통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는 내용이며, ⑤번의 다양한 문화 예술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본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확장하여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56. 〔중심 정보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에서는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이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 새롭게 그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기〉는 이질적인 것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같은 한국인의 정체성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타자(他者)'와의 공존과 '보편감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적 정체성의 정립 방향'에 대해 토론할 때, ④번에서 문화적 경계가 허물어져 가는 상황을 우려하여 국가와 민족 중심의 집단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타자(他者)'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보편 감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수 필 /

□ 출전 : (가) 김영두 옮김,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나) 조면희 옮김, 『황소에게 보내는 격문 외』

57.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쓴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글 (가), (나)에서 필자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뜻을 말하되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는 정중한 태도로 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①번에서 시대적 상황을 부각시켜 권유하는 태도는 (나)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④번에서 회유하는 방식은 (나)에 나타나 있지 않다.

58. 〔세부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는지를 묻고 있다.

〔해설〕 조식이 세상에 대한 근심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음을 언급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③번이 정답이다. ①번은 조식이 벼슬길을 택하지 않는 것을 통해, ②번은 학문과 덕망이 높아 은둔해 있어도 임금과 동료들이 그를 추천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④번은 (나)의 둘째 단락 초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⑤번은 (나)의 첫째 단락 앞부분과 둘째 단락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59. 〔어휘의 다의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두다'의 다의적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해설〕 ㉠의 '두다'는 '생각 따위를 가지다.'의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답은 ⑤번이다. ①번은 '중요성이나 가치 따위를 부여하다.'의 의미이며, ②번은 '어떤 상황이 어떤 시간이나 기간에 걸치다.'이며, ③번은 동사 뒤에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주로 그 행동이 어떤 다른 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보일 때 쓰인다. ④번은 '일정한 곳에 놓다.'의 의미이다.

60. **〔서술자의 삶의 태도 추론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도산십이곡 10곡〉과 지문을 참고하여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의 작품에서 화자는 '당시에 행하던 길'은 학문 수양의 길, '어디 가 다니다가'는 벼슬살이의 길, '다른 마음'은 벼슬에 대한 미련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학문 수양은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 필자는 조식에게 학문에 힘 쓴 결과를 세상을 위해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자신도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학문에 대한 소망을 함께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와 (가)에 나타난 필자의 삶의 태도를 종합한다면 ②번이 정답이다. ①번은 〈보기〉의 관점만 제시되었고, ③번은 〈보기〉와 (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⑤번은 유학자의 도리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